

20일 흑피옥 유물 출토 현장 공개 “인류 초고대문명 존재 밝힐 일대 사건”

중국 초고대 문명의 유물로 추정되는 ‘흑피옥(黑皮玉)’ 조각상을 발굴, 수집해온 광주 출신 고유물 수집가 김희용(59·광주시 북구 매곡동)씨가 오는 20일 조각상 출토 현장을 공개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리무진 버스에 고찰단(참관단)을 태우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중국 베이징시 베이징호텔을 출발,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우란차푸(烏蘭察布)시 외곽 황무지의 현장에서 간 뒤 흑피옥 조각상 발굴장소를 직접 지목할 예정이다.

김씨가 이끄는 고찰단에는 중국 국가박물관, 북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옥기전문가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흑피옥 소장자협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다. 소장자 협회는 지난 10여년간 중국내 골동시장에 일부 유통되어 온 흑피옥 조각상을 수집한 중국인들이 조직한 단체다.

고찰단은 화교들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중화문화추진협회 관계자들의 재정 지원 등으로 꾸려졌으며, 중국 CCTV 위성전, 일본, 영국 등 방송사나 신문사 등 중국 주재 기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흑피옥 출토지에서 흑피옥 문명의 주인인 고대인들이 남긴 대신전, 주거지를 비롯해 흑피옥 문명의 종말을 불렀던 화산 폭발 현장 등 흑피옥 문명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씨가 말하는 현장은 거대 화산폭발로 화산재에 묻힌 광대한 영역이며 신전터·대규모 부락터·우물터·묘지 등이 산재해 있다. 김씨는 이곳을 공식 발굴하면 아직도 수만점의 흑피옥 조각상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현장공개에 앞서 지난 1일 일시 귀국, “흑피옥 매장지를 공개하는 것은 기존 고고학 상식을 무너뜨리는 데 발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식 발굴을 망설이는 중국당국에게 발굴을 종용하고 새로운 문명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일대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흑피옥 조각상이 광주일보 보도(2007년 9월1일자 1·4면)로 국내외 고고학계

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직후 중국으로 건너가 자신이 소장한 520점의 흑피옥 조각상 전부를 중국당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중국 사회과학원 문물국에 흑피옥 매장지를 정식 발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는 또 흑피옥 조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중국내 기성 고고학계의 비난에 대해 중국 관영 CCTV, 일본 NHK, 영국 BBC, 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공개발굴을 벌이자고 맞서 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흑피옥의 실재를 부정하는 고고학계의 완강한 반대 등에 부딪혀 발굴을

미루는 사이 중국 고고학계 전문가들과 3~4천여명에 달하는 흑피옥 소장자들은 김씨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김씨에게 민간차원의 현장답사에 나설것을 요청해왔다.

실제 중국 북경사범대 장일평 교수는 최근 “흑피옥 문명이 인류 최초 문명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루 빨리 발굴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김씨와 함께 흑피옥을 연구해온 정건재 전남과학대학 동북아문화연구소 소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이 흑피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게된 것은 정 소장이 서울대 기초과학 공동기원에 의

네이멍구 자치구 우란차푸시 외곽 발굴장소 지목

중국 당국에 발굴 요청...중국내 소장자도 다수



김씨가 소장한 흑피옥 조각상 중 ‘돼지와 남자’(높이 26.8cm·왼쪽)와 ‘새와 노인’(높이 30cm).



뢰해 흑피옥의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구석기 후기인 1만4천300년 전(± 60년)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조각상이 지금까지 알려진 고대문명들보다 훨씬 전의 초고대문명 유물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현장공개는 계기로 흑피옥 매장지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본격 발굴은 오는 8월 북경올림픽이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용씨는 “세상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명이 한국인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는 멋진 드라마가 될 것이다”며 “이번 현장공개는 계기로 중국은 물론 전세계 고고학계가 흑피옥에 대해 진지하고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사건임을 전제로 “흑피옥은 수수께끼의 초고대 문명의 극히 일부인 무덤 부장품일 뿐이며 현장은 수많은 우물터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하천문명이 아닌 우물문명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명의 이름을 ‘대정천(大井泉) 문명’이라 부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흑피옥이 매장돼 있는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우란차푸(烏蘭察布)시 일대 전경.

■ 매장지 공개하는 광주 출신 고유물 수집가 김희용 씨



흑피옥 매장지 공개에 나서는 김희용(왼쪽)씨가 참관단을 수송할 버스에 부착할 ‘인류 최초 문명 고찰단’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의 중국내 활동을 돕고 있는 정건재 전남과학대 교수.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발굴 더이상 미뤄선 안돼”

— 참관단에게 공개할 내용은.

▲흑피옥 문명 전반에 관한 것이다.

내가 수집했던 흑피옥의 출토지는 물론 흑피옥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주거지, 의식을 치렀던 대신전, 우물터 등 신비한 고대사의 현장이다. 또 흑피옥 문명을 인류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화산폭발 현장 등 흑피옥 문명의 생성과 소멸 전반에 대해 내용도 소개할 예정이다. 실제 발굴현장을 목격했던 흑피옥 매장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 왜 중국에선 흑피옥 발굴을 미루나.

▲동북공정 등 한·중 고대사에 관한 미묘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흑피옥의 진가를 조명하고 매장지를 파악한 사람이 한국인이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자존심 강한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은 물론 세계 역사학계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문명을 한국인이 발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또 흑피옥을 고대유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 역사학계의 편협한 시각도 발굴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다.

— 중국 내에 흑피옥 소장자가 많은데.

▲적게는 3개 많게는 수십개 소

“발견자가 한국인인 것

中 당국 부담 크겠지만

대발견 인정해 줬으면”

장하고 있는 수집가들이 줄잡아 3~4천명은 될 것이다. 내가 흑피옥의 발굴을 중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많은 흑피옥 소장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97년부터 수집을 시작해 무려 200점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민간인들인 ‘흑피옥 소장자협회’ 회원들도 수백명에 달한다.

그들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흑피옥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하루 빨리 발굴을 통해 진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호가들이다.

— 그동안 중국에서 뭘 했나.

▲1년 여 동안 북경 현지에서 머물면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 흑피옥의 진가를 설명하고 발굴을 요청해왔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문물국을 비롯해 북경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등 고고학 전문가들을 만나 발굴의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

했다. 또 옥기전문가협회, 민간기구인 중화문화추진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굴을 주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흑피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북경시내에서 흑피옥을 일부 전시하기도 했다.

—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형 흑피옥을 구입했다는 데.

▲1m50cm 짜리 대형 흑피옥 조각상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흑피옥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소 머리 형상에 몸통은 인체 모양이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발굴을 미루는 사이 광범위하게 도굴이 이뤄지는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굴된 역사 한순간에 사라지는 만큼 하루 빨리 발굴과 함께 보존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 중국 당국이 흑피옥 520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변함없나.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인류사의 귀중한 유물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의사를 밝혔다. 지금도 기증의사는 변함없다. ‘한국인 김희용’이 인류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발견을 해냈다는 것을 역사학계와 중국당국이 인정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HYUNJIN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대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이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로 현진에버빌입니다!

1.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2.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3.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4.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

본양문의 062-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빌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분양사: (주)지엠지산업개발

地友 부동산컨설팅

본선동 남구청앞 슬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분석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

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중·고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5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두원동 우동도서관사거리 농협앞편 2층)

건 물

●9억9천5백만원 6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7억7천5백만원 3층동전 아파트(전면) 2층

생계형, 음식, 호프, 고치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경영진단·인테리어

▶서구 매월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 5십만

▶서구 쌍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서구 중앙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광산구 쌍림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창업 상담(창업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함) 매월 일정 수시 접수합니다 ※